오신통 그 다섯 부하를 내가 부리느냐 말리느냐에 문제가 있습니다

☞ A17면에서 계속

부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섯 가지에 말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구할 때에 똑똑히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콤퓨타에 우리 인간이 말리고 있고 자유자재 못 합니다. 우리가 꼭 심부름을 해야만이 콤퓨타가 움죽거리게 돼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영사기나 천체망원경이나 또는 무전기나 탐지기나 이런 것이 다섯 가지가 다 표면적으로 나와 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한테 영원히 이 무전자의 유전자로, 무전자의 능력에 의해서만이 그 유전자 바로 거기에 공(空)해 있다는 겁니다. 자연이 거기에 공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물질적으로 연구해 낸 겁니다. 연구해 냈어도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면은 절대로 그건 움죽거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 하나를, 물질적으로 내놓지 않아도 천차만별로 바꾸어가면서 우리는 무전통신을 할 수 있고, 콤퓨타로 책정을 할 수가 있고, 또는 그 유전자의 모든 유체들의 마음들을 책정해서 알 수 있고, 거쳐온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불가에서 말하면 타심통(他心通)이라고 합니다. 또 지금 속을 아는 건 숙명통(宿命通)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천이통(天耳通)이라고 하는 건 마음으로 듣는 도리를 말하니 무전기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무전기와 더불어 다섯 가지를 자기가 소유하고 있을 때, 소유하고 있는 그 다섯 가지가 나의 부하라면, 다섯 부하라면 바로 내가 주인으로서 그 다섯 부하를 동시에 부리지마는 여러분은 그 다섯 부하들에게 오히려 말리고 있습니다. 말리느냐 부리느냐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유린을 당하느냐 내가 부리고 있느냐.

그런데 말입니다, 아주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세균이라는, 공중 세균, 흙의 세균, 물의 세균, 참 모든 이 세균들이 독특한 자기 근본 본성을 가지기 때문에, 얼른 표현하자면 그러한 독특한 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고저러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물에서는 물대로 응용할 수 있고, 들에서는 들대로 응용할 수 있고, 흙에서는 흙대로 응용할 수 있고, 공중에선 공중대로 응용할 수가 있고, 바람이나 모든 걸 응용할 수가 있으니 하물며 우리가 나 하나 끌고 다니기야 식은 죽 먹기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말로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것은 거기에서도, 비유하건대 물에서 사는 생명들도 바로 그 유전자로 인해서 수만 개가 퍼지는데 모습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쏘가리라는 모습을 가지고 나왔다면 그 모습을 빨리 편리하게 바꿔야 할 텐데도 쏘가리라는 모습을 바꿀 수가 없는 것은 바로 그 쏘가리의 마음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쏘가리의 마음에 달려 가지고는 자기가 이렇게 생겼다는 그 의식에 담겨 있는 그 마음이 도대체 변화를 시키질 못합니다.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광대무변하게 이렇게도 바꿀 수 있고 저렇게도 바꿀 수 있고 무한정으로 바꿀 수 있는데도 자기가 그것을 완전히 계발을 못 했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그래 쏘가리의 모습을 백 년이고 천 년이고 버리지 못하고 말입니다. 진화를 못 하는 겁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물질에 끄달리면서 의식적으로 자꾸자꾸 쌓아 온 그 생각들이 의식화돼 있다면은 그 차원에서 도무지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백 년이 가든 천 년이 가든 그건 그 차원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깡통 간 데 깡통이 모이고, 금 간 데 금이 모이고, 넝마 간 데 넝마가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인간은 그렇게 참 광대무변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당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선 이렇게 대충 마무리를 하고,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던 것을 하자면 왜 은하계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하는 얘깁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으로 치면 동맥 정맥이 안에서 오르락내리락하듯이 은하계도 인간의 몸체와 같이 삼각원형을 이루면서 그 물이 삼각형으로 돌고 있습니다. 들이고 내고 하는 그 삼각형의 받침대는, 바로 애들이 이렇게 똥그랗게 원을 그리려면 콤파스로 이렇게 대고 그리게 되죠? 그런 거와 같이 받침대가 인간에게도 주어져 있는가 하면 그 은하계에도 주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게 무전자의 한자리에 삼각원형을 이룬 받침대라고 보겠습니다. 나는 시쳇말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공부한 사람들이 알아서 생각들 하세요. 허허, 믿든 안 믿든 그건 알아서들 할 거고요.

그래서 삼각원형을 이루면서 뒷받침대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간 지점에다 딱 찍어 놓고서 무전자의 받침대가 되는 겁니다. 이건 보이는 데의 받침대가 아닙니다. 무전자의 받침대, 즉 말하자면 백지가 있어야 글씨를 쓰듯이 받침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무전자의 받침대가 삼각원형을 이루고 있을 때에, 비로소 유전자의 그 유체가 바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똑바로 궤도를 도는 것입니다. 우리도 중심이 없다면 똑바로 돌지를 못하고 미치광이 모양으로 돌 것입니다, 아마. 그런 거와 같이 그 은하계의 무리들도 그렇게 무전자로, 무전자의 받침대로 위에서 유전자가 그렇게 많은 그 모습들을 소생케 해 가지고, 유체를 형성시켜 가지고 자기네들이 돌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세계가 다르고 이 세계가 다른 건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멀리 은하계는 아주 특별히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마는 그것이 먼저 낳든 나중에 낳든 바로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 상태에서 우리가 볼 때는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 어느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억 년 전에 그것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현재에 태어나서 내가 그걸 안다면 바로 지금이 태초며 지금이 시작인 겁니다. 지금 모두가 생한 거다 이겁니다. 내가 그걸, 생한 걸 지금 알았으니까, 안 것이 뭐냐 하면은 억겁 전년서부터 내가 진화돼서 나왔다 할지라도 억겁 전년이 일 초도 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습니다. 억 년이라는 말, 언어도 붙지 않는 자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생겨난 그 문제가, 무전자의 그 삼각원형을 이룬 자체가 바로 그 후에 참, 마음들의 그 빛을 내게 되었죠. 마음들의 빛을 낸다는 것은 우리가 현상세계에서 본다면 우리가 마음을 내지 않고는 지금 전기가 발전이 될 수도 없고 전기가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또 전기가 들어올 수도 없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 삼각원형에 의해서 은하계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겠죠. 그 삼각원형의 능력으로 인해서 바로 태양도 생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태양은 언제, 북두칠성이 생기기 전에 생겼느냐? 아닙니다. 별성이, 그렇게 많은 별성이 생기고 참, 질서를 유지하고 다 그런 뒤에야 태양은 나중에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전기 달듯이 말입니다. 촛불을 켜다가 전기 달듯이 발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발전은 누가 했느냐. 그 유전자가 광대무변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갈라져 나가는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악한 것은 악한 데 쓰이는 칼이 될 것이고, 즉 말하자면 유전자의 그 진화력을 아주 못되게 쓰는 악령의 문제들이 거기에서 부풀려 나온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이게 좋게 발전이 돼서, 유전자로 인해서 유체를 승화시키는 데는 무엇이든 아랑곳없이 무전자의 그 능력으로 이끌어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어디까지나 그 궤도를 올바르게 돌면서 생명체든지 생명체가 아니든지 남을 이익하게, 즉 말하자면 유체든지 무체든지 다 이익하게 이끌어 가지고 가면서 집단을 이뤄 갔다고 볼 수 있죠. 말하자면 대통령이라고 할까요? 또 집단체를 이끌어 가지고 가는 회사 사장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모습 없는 모습들을 가지고서 수많은 그 생명체들을 소생시켰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그것들을 비유해서 보겠어요. 왜 세균이 나쁜 역할도 하고 좋은 역할도 하느냐는 얘깁니다. 그것이 이해가 안 간다면 우리 인체 안에서도, 내 몸 안에서도 생명체들이, 지금 세균들이 있다고 봅시다. 이름을 세균이라 하지만 바로 나인 것입니다. 나의 분신인 생명이 여기에 있는데 만약에 타의에서 유전자가 들어왔다는 세균입니다. 자의에 있는 생명은 세균이 아닙니다. 나를 나쁘게, 인체를 해롭게 하는 것이 세균이지 인체를 이익하게 하는 것은 바로 '나'인 것입니다.

만약에 내 생각이 잘못 돌아가면, 이 혹성의 사장이, 여러분이 다 혹성의 사장입니다. 사장이 잘못 생각을 한다면 이 인체의 유전자, 즉 말하자면 인체에 있는 생명들의 유전자들이 다 겉으로 노는 거예요. 그 사장이 잘못 생각하는 대로 파워를 일으키고 분단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에, 그러니까 타의에서 세균이 침입을 해서 들어올 때 막아 내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럼으로써 자기 몸뚱이는 여기저기 병이 들고, 파워를 일으키니까. 이렇게 해서 집이 망가지는 거죠. (중략)

이런 예가 있었어요. 요것만 한마디 하고 끝내겠습니다. 어느 큰 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이 참 비참하고 그러니까 산골에서 한 마을을 이루고 있으면서 참, 자기의 그 애절하고 괴로웁고 그런 것을 어디다 호소할 수가 없어서 그 돌에다 했습니다. 항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누구든지 아쉬움이 있으면 거기 가서 빌었습니다. 마음으로 호소하고 빌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돌은 가만히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 마음들이, 자꾸 거기다가 호소를 하고 그러니까 그 마음들이 거기 집중이 돼 가지곤 그냥 거기 전체가 한 집단이 돼 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사람의 흔백이 하나냐 하면 하나가 아니거든요. 거기 그렇게 마음을 두고 호소를 하고 마음을 거기다 두었다면 내 혼이 거기도 있고, 내가 이 육체가 나인 줄 알고 여기 있으니까 여기도 있고, 내가 어디에다가 집착을 하고 있으면 집착한 데로 왔다 갔다 하고, 이거는 그냥 무분별하게 분별없이 그냥, 그저 그 혼은 열 개도 됐다 백 개도 됐다 만 개도 됐다가 천 개도 됐다가 하나도 됐다가 하면서 이 짓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배운 사람들은 알아서 고정되게 두지를 않는데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이 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고정되게 거기다가 아예 착을 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빼도 끼도 못하는 용납될 수 없는 문제가 생겨서 그걸 업보라고 하고 그런 윤회의 걸림에 걸려서 세세생생에 벗어나지 못한다는 문제들이 거기에 많이 걸려 돌아가죠. 생활에서도 많이 그렇게 돌아가고요.

그러면 그렇게 거기에 집단을 이루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집단을 이룬 그것을 누가 모아 놨겠습니까? 그 한동네에서 모아 놨단 말입니다. 그것은 차원이 높은 유전자라면 별문제가 아닌데 차원이 낮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생겼느냐 하면, 거기다가 뭐를 안 갖다 놓으면 동네가 모두 야단법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노릇을 어떡하죠? 처음에는 요만한 거 갖다 놔서 해결이 됐다면, 나중엔 큰 걸 갖다 놔야 하고 큰 걸 갖다 놓다가 안 됐으면 그것보다 더 큰 걸 갖다 놔야 하고, 이 지경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미신 노릇을 하기 때문에 미신이 생긴 거지 사람이 미신 노릇을 안 한다면 어찌 미신이 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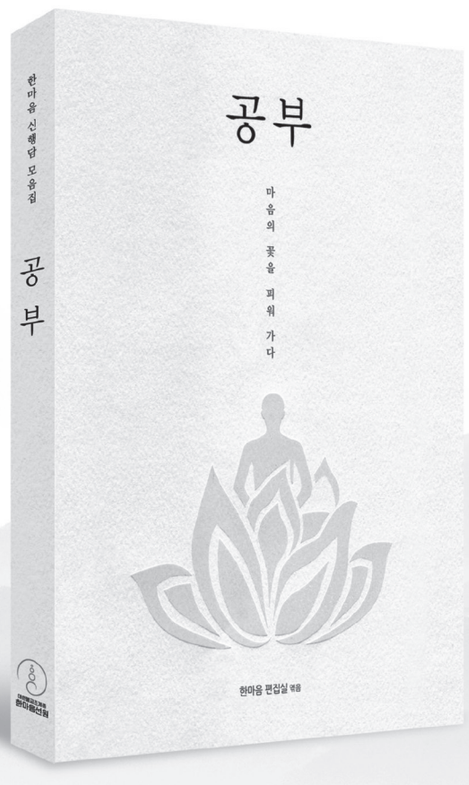
그래, 나중에는 그 동네에 가서 그런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당신네들이 미신 짓을 하기 때문에 그 미신이 있는 거지, 당신네들이 미신 짓을 안 한다면 미신은 없을 것이다." 하고서 그것을 그냥 아예 팽개쳐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 못살게 만들어 놓느라고 그런다." 그럽디다. 그래도 떡도 해 놓지 말라고 그러고 모든 걸 아주 싹 없애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네가 잘 살게 됐습니다. 오히려 편안케 말입니다.

그렇듯이 내 마음 가운데 선신도 있고 악신도 있고, 모든 신들이 내 마음 가운데, 내 한 주인공에 있는 거지 어디 딴 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은 이만 두고요, 요다음에 그 유전자가 수없이 확산돼 가지고 그렇게 수없는 모습을 가지고 나온다는 이런 문제를 또 토론을 하십시다.

※위 법문은 1985년 11월 17일 정기법회 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도 저렇게도 무한정으로 바꿀 수 있는데도 물질에 끄달리면서 의식적으로 자꾸자꾸 쌓아온 생각들이 의식화돼 있다면 그 차원에서 도무지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마음의 꽃을 피워 가다 공부



한마음선원 신행 포교지인 〈한마음〉에 실렸던 신행담들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엮은 책입니다.

《공부》는 마음공부에 관한 책이자 인생 공부에 관한 책입니다.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들의 진솔한 이야기,
다시 꺼내 보니 새삼 와 닿는 이야기, 그래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픈 39편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음 편집실 엮음 | 256쪽 | 값 12,000원

판매처
-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16
- 운주사 02-3672-7181
-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 031-470-3118
- 전국 온라인 서점 판매
- 온라인 주문 현불샵 http://www.hyunbulshop.com
  한마음 블로그 『한그루의 숲』 http://blog.naver.com/hanjournal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TEL : 031)470-3100 FAX : 031)470-3116
www.hanmaum.org